

열왕기상 4. ‘솔로몬’의 왕국의 영광과 번영 (왕상 4:1-34)

들어가기

열왕기상 4 장은 ‘솔로몬’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보여주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능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하여 신하로 삼고, 이스라엘을 12 지방으로 나누어 이를 담당할 12 명의 장관들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중앙에 필요한 물자들을 한달 씩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하면서 ‘솔로몬’ 왕국은 물질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왕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아가 모든 분야에서 ‘솔로몬’의 학문과 지혜가 탁월하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들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학문을 듣고 배우기 위해 사신들이 찾아오며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 ‘솔로몬’ 왕국의 내각 (or ‘솔로몬’의 종신들) (1-6 절)

➤ ‘솔로몬’의 내각에서 특별히 주목해 볼 두 가지

①. 모든 신하들 중에서 제일 먼저 제사장을 거론했다는 것! (2 절)

- > 이는 ‘솔로몬’이 무관들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신하들보다 제사장을 제일 먼저 앞세움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정치체제(신정국가체제)를 갖추었음을 시사하는 것!!
- >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모든 국가의 흥망 성쇠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 >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모르거나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앞세우고 사람을 우선시 하고 따르는 것에도 모든 비극은 시작됨을 깨달아야 할 것!!

②. 제사장 ‘아비아달’의 등장?

- > 그는 이미 2 장에서 반역에 가담한 죄를 물어 파면 당한 사람!! 그런데 왜?
- > 학자들의 견해: 비록 그가 대제사장의 직무에서는 완전히 파면 당하고 고향으로 유배되었나, 제사장의 칭호는 계속 붙여주었다고 봄!
- 자신의 죄에 대해 자백과 징계에 대한 순종의 결과 -> 목숨의 보전 + 칭호의 보전

- 참고: 본 장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고, 형식적으론 사독이 대제사장이었으나 당시 그는 매우 연로하였기에 그의 직무는 그를 대신하여 손자 ‘아사리아’가 담당하였음!
- 2 절은 ‘아사리아’를 ‘사독’의 아들로 표기했지만, 그는 ‘사독’의 손자였음.
- 역대상 6 장의 레위의 족보
 ‘...,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대상 6:8-9)

2.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12 지방으로 나누고 각 지방을 담당할 12 장관을 세웠습니다. (7-19 절)

1)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12 지방으로 나누고 12 장관을 두어 관리하게 한 이유는? (7 절)

- 안정적 세금을 통해 왕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 -> 각 지역이 한 달씩 왕실물자를 담당!!

2) 12 장관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을 도표로 정리해 보자. ((8-19 절)

	담당 장관	담당 행정 구역	관계된 지파
1	벤홀 (8 절)	* 에브라임 산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6km 떨어진 세겜 건너편까지의 지역	에브라임 지파
2	벤데겔 (9 절)	* 마가스, 사알빔, 벳세메스, 엘론벳하난 성읍 요바 동쪽으로 대부분 단 지파의 영지	단 지파
3	벤헤셋 (10 절)	* 아랍뫼을 중심으로 소고와 헤벨, 사론 평야	므낏세 반 지파
4	벤아비나답 (11 절) 솔로몬의 사위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 북의 베니게와 남의 블레셋 사이에 있는 땅	
5	바아나 (12 절)	다아낙, 므깃도,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벤스안 온 땅	
6	벤게벨 (13 절)	길르앗 라뫼의 므낏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늦빳장 있는 육십 개의 큰 성읍들 (요단 동편)	므낏세 반 지파
7	아히나답 (14 절)	* 마하나님 압북 강변에 위치한 지역 (요단 동편)	갓 지파
8	아히마아스 (15 절) 솔로몬의 사위	갈릴리 바다 서쪽 일대의 평지로 12 구역중 제일 북쪽에 위치함	납달리 지파
9	후세의 아들 바아나 (16 절)	아셀과 아롯 지역 납달리 지파 영지의 서쪽	아셀, 스불론 지파
10	여호사밧 (17 절)	이스라엘 평원의 대부분	잇사갈 지파
11	엘라의 아들 시므이 (18 절)	예루살렘 북쪽의 평야 지역	베냐민 지파
12	우리의 아들 길르앗 (19 절)	아모리 왕 시흔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길르앗 땅으로 사해 동편에 위치한 지역	르우벤 지파

➤ ‘솔로몬’의 행정 구역을 통해 주목해 볼 수 있는 것?

- ①. ‘솔로몬’의 행정구역은 이전 여호수아를 통해 각 지파들에게 분할 된 것과는 완전히 다름!
-> 곧 ‘솔로몬’을 통해 실질적인 왕정시대가 시작되었고 이를 위한 새로운 지역체계 혹은 행정체계가 시작되었다는 것.
- ②. ‘솔로몬’의 행정구역은 당시 ‘유다’ 지파의 영지가 제외된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만 위치한다는 것! 곧 ‘유다’ 영지를 제외한 열 한 지파와만 관계가 있다는 것!!
-> 이는 유다 지파는 ‘솔로몬’이 직접 관할하면서 챙기겠다는 것을 의미!!
->

3. ‘솔로몬’ 왕국의 평안과 국력 신장 (20-28 절)

1) 주목 1. 당시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는 어떠했는가? (21 절)

- 21 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 > 여기서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 서편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곳에 위치한 큰 성 ‘딤사’로부터 블레셋 국경과 애굽 국경 부근인 가사 남쪽 지방의 광범위한 땅인 가나안 전 지역을 가리킴.
 - > 그런데 이 땅은 오래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의 모든 땅을 의미함!! (창 17:8)
 - > 곧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약 1000 년의 기간이 지난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
 - >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늘 주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길 다짐합시다!!

2) 주목 2. ‘솔로몬’ 왕실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의 양은? (22-23 절)

- 가는 밀가루 30 고르(히브리 계량단위) + 굵은 밀가루 육십 고르 = 오늘날로는 약 20kg
- 살진 소 10 마리 + 일반 소 20 마리 + 양 100 마리 + 수사슴 + 암사슴 + 노루 + 살진 새들
 - 참고: 11 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가족
 - 700 명의 아내 + 300 명의 첩!
 - 거기서 태어난 자녀의 수는 언급되지 않았음.
- 그럼 왜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 왕실의 하루 식량의 양까지 굳이 소개했을까?
 -
 -

3) 주목 3. 25 절은 솔로몬의 사는 날 동안 온 이스라엘이 포도 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증언!!

- > 이 표현은 가나안 땅에 사는 가장 이상적인 생활 조건을 가리키는 풍자적인 표현 (미 4:4)
- > 곧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그 어떤 흉년이나 전쟁도 없이 온 백성이 평안하고 행복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
- > 이는 열왕기상 3 장 11-13 절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것!!

4) 주목 4. ‘솔로몬’의 군대는 어떠했는가? (26-28 절)

- > 병거를 위한 말의 외양간이 40.000 개 + 마병 12.000 명 그 외 많은 군량미를 보유함
- > 아마 ‘솔로몬’은 이 군대를 통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신의 왕국을 지키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을 것!

- 그럼 이런 ‘솔로몬’의 결정 (행위)는 옳은 것일까?

- > 가장 평화롭고 축복이 가득한 시대에 가장 강한 군대를 준비한 솔로몬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위였음!!
- > 신명기 17:16 ->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 것!!
- > 곧 인간적으로 보면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대에 부국 강병책으로 대비하는 것은 옳고 바람직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 > 결국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됨!!
- >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4.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에 대한 소문이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29-34 절)

- 1)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증언합니다!
 - >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고,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려고 노력합시다!
- 2) 31 절 주목: ‘솔로몬’의 지혜는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 ‘다르다’ 보다 더 나아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 > 이들은 다 ‘유다’의 아들인 ‘세라’의 후손들 (역대상 2:6)
 - > 특별히 ‘에단’과 ‘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시를 짓던 사람들 (시 88:1, 89:1)
 - > 이들은 다 ‘다윗’에게 선택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음악 하는 자들로 헌신함 (역대상 15:17)
- 3) 32 절 주목: ‘솔로몬’은 잠언 3000 편을 지었고, 1005 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 > 솔로몬의 잠언 중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바로 구약 성경의 잠언!
 - > 솔로몬의 노래 중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구약 성경의 ‘아가서’와 시편 72, 127 편!
- 4)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게 나타났습니다. (33-34 절)
 - >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 >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 > 곧 솔로몬은 철학자요, 시인이요, 동물학자, 식물학자, 정치가, 교육가, 재판관, etc.
 - > 그로 인해 온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 왔다고 성경은 증언!

5.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단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